국제 농업 정보: 유럽

유럽 농업·농촌·식품 동향

1 인도의 식량안보와 EU 간 관계[1)]

- 2022년 인도의 인구는 약 14억 1,000만 명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으며, 2023년에는 중국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.

- 인도는 2015년 이후 식량 곡물 생산이 크게 증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식량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음.
  - 인도 브랜드 자산 재단(IBEF)에 따르면, 농업은 인도 인구의 약 58%가 생계를 유지하는 주요 원천임.
  - 2022년 유엔세계식량계획(WFP)에 따르면, 인도의 2021년 세계 기아 지수는 116 개국 중 101위를 기록하였으며, 특히 6~59개월 미만 영유아의 약 35.5%가 만성 영양실조로 고통받고 있음.

- 인도는 2030년 중반까지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, 인도의 자원 수요가 상품 가격을 주도할 것임.
  - 인도는 세계 최대의 쌀 생산국이며, 에너지, 비료 및 해바라기씨유와 같은 농업 투입물의 주요 수입국임.
  - 인도의 에너지 소비는 다른 국가들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,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임.
  - 인도는 우크라이나산 해바라기씨유의 세계 최대 수입국이며, 수입이 국내 시장 공급의 86%를 차지함.

- 인도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국가 중 하나이며, 2021년 세계 기후 위험지수에서 7위를 차지함.

1) 유럽연합의회조사처의 "India and food (in)security"(2022.7.25.)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서 요약·정리하여 작성함.



국제 농업 정보: 유럽

- 석탄 사용에 대한 '단계적 폐지'보다는 '단계적 축소'를 요구하고 있으며, 홍수, 기온 상승, 폭염 및 강우량 감소는 농업 부문의 취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국가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.

■ 인도와 EU는 2004년부터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해왔으나 2014년 이후 EU의 양자 간 개발 협력 대상은 아님. 그러나 2021년 채택된 EU의 근린국가 지원, 개발원조, 국제협력(NDICI-GE)에 따라 일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.

■ 2020년 7월에 개최된 제15차 EU-인도 정상회담에서 기후변화와 녹색에너지에 관한 협력을 다루는 'EU-인도 전략적 파트너십: 2025년 로드맵'을 승인함.

■ 2021년 5월에는 녹색성장(민간 항공의 탈탄소화 포함), 무역과 기술을 통한 포용적 성장, 지속가능한 식품 시스템을 포함한 식품, 영양 및 농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함.

■ 2022년 6월에는 공식적으로 균형 있고 포괄적이며, 상호 이익이 되는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2013년 이후 동결된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함.

- EU와 인도는 2007년 포괄적무역투자협정(BTIA) 협상을 시작했으나 2013년에 결렬

■ EU는 중국과 미국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인도의 교역국이며, 인도는 EU의 10번째 교역국임.

- 2021년 EU는 인도 무역의 11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인도는 EU 무역의 2.1%를 차지

■ 2022년 4월 델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인도 총리는 EU-인도 간 무역 및 기술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함.

※ 자료: 주간농업농촌식품동향(2022.09.13.). 미래정책연구실. 한국농촌경제연구원